

데스크 시국



김미은
편집국 부국장·여론매체부장

영화를 보고 나면 기이한 감정을 휩싸인다. 분명 공포 영화가 아닌데,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섬뜩하다. 단순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본 것만 같다. 영화에 삽입된 미세한 어떤 '소리들'과 불안한 음악이 줄곧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불현듯,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까지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된다.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칸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인 '존 오브 인터레스트(The Zone of interest)' 이야기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이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평온한 일상이다. 군복을 차려 입고 출근을 준비하는 독일군 장교, 꽃이 만발한 정원을 가꾸는 아내, 자전거를 타고 푸른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 실존 인물인 루돌프 회스의 근무처가 담장 바로 옆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사실이 이 기이함을 만들어낸다.

예술가에 상상력을 허하라

영화를 보는 내내 담장 너머를 떠올리며 전애했다. 몇 년 전 취재차 방문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습이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산처럼 쌓여 있는 수 천 켈레의 신발과 잘려나간 머리카락, 수용소의 아이들 사진, 가스실의 존재. 오후 늦게 도착해 관람객이 거의 없었던

은펜칼럼



이병우
우아포인트연구소 대표

멘토링과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의 일이다. 세대융합 창업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신중년 전문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를 매칭하여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시너이에겐 전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화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일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관 기관에 등록을 하고 매칭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창업한 지 2년 된 30대 청년 사업가였고, 마케팅 홍보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근무 첫날, 회사 상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토론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 보였다. 그래서 평소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지적점을 해줬다. 이제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

기고



곽성구
전 광주일보 교사

세상은 날로 변해가고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상관없이 새로운 단어의 탄생에 적응하기 여간 힘들어 한다. 특히 신조어나 은어는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렵다. 출입자들을 살펴보면 얼른 뜻이 들어와서 '와 이건 기발하구나' 하는 단어도 있긴 하다. 그러나 새로운 단어가 거북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서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할아버지 '읽씹'이 뭐예요" "너 어디서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니?" "할아버지 읽고 있는 신문에서 본 것인데요, tv에서도 나와요." 세상에서 내 말을 제일 잘 듣고 실천하는 손주 녀석의 질문에 매우 당황함은 물론 금방 답을 하지 못했었다.

최근에 탄생한 신조어인 것은 분명한데 일상생활에서 품격있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한참을 궁리하였

광주가 '오월'을 기억하는 방법

데다 바까지 추적추적 내려 더욱 더 어찌할 바를 몰랐었다. 영화에 수용소 장면은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삶이 가능할까" 여겨지는 한 가족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처음엔 아우슈비츠 현장을 기억하는 나의 경험이 감정을 극대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한데 그렇지 않았다. 지인 역시 유대인 학살을 다룬 그 어떤 영화들보다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전율이 일었다고 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자연스레 '오월 광주'를 다룬 예술작품들이 떠올랐다. 더불어 우여곡절 끝에 원형복원이 결정된 후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5-18 최후 항전지 옛 전남도청에 들어설 전시 콘텐츠에 생각이 미쳤다.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박제된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무엇일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다.

내년이면 5-18 45주년을 맞이할 오월 광주를 대표할 만한 예술작품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당시자인 광주를 비롯해 국내외 예술인들이 술하게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결과물은 빈약하다. 예술가의 역량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제한시키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작품을 만들던 이들도 '광주'를 소재로 작업할 때면 실력 발휘를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적 무게와 시대적 사명에 부담을 갖고 작업하는 이들에게 광주 사람들, 특히 오월 관계자들의 '고착화된 시선'은 번의 아니게 그들의 날개를 꺾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작품은 나오지 않는다.

5-18은 광주의 정체성과 직결되기에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국내외 작가들 역시 5-18을 작품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작업

지적질의 즐거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당연한데도 말이다. 그 다음날 매칭을 취소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순간 매우 당황했다. 아니 이럴 수가? 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터인데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칭은 실패로 끝났다. 지적질의 즐거움(?)을 누리다 낭패를 본 것이다. 청년 창업자의 경우 지적 받으려고 멘토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업화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적을 해대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을 것이다. 이 일이 내게 실패를 안겨줬지만 한편으로 나에게 큰 경험이 됐다. 이후엔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창업 멘토 교육에 참여할 경우 자주 강조되는 것이 '나 때는'과 '지적질'에 대한 경고이다. 그리고 퇴임 후에 바로 멘토링에 참여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진 대기업에서 근무한 사람일수록 스타트업을 보면 지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퇴직하고 어찌 할 때는 2년이 걸린다는 말까지 있다. 충분히 공감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선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회의를 할 때, 내 의견을 미리 말하지 않으려 혀를 깨물었다." 전문가로 꾸러진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분의 소감이다.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다. 아

할 수 있도록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광주가 해야 할 일이다.

광주의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새롭게 부임한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등 시립예술단체들 역시 '오월 공연'을 무대에 올리겠다는 포부를 늘 밝힌다. 올해 다시 본 광주시립발레단의 'DIVINE'은 여전히 감동적이었지만 지금까지 시립단체 작품과 지역에서 제작된 작품 중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은 손에 꼽을 정도다. 광주의 예술가들도 이제 자유로워질길 바란다. 오월 관련 코미디 한편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

오월 관계자의 열린 마음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지난 23일 5-18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기본 설계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2월 도청 전시 설계 착수보고회를 가진 이후 나온 첫 결과물이다. 추진단은 도청을 랜드마크 이상의 '마인드마크(Mind mark)'로 삼는다는 기조 아래 도청 본관, 상무관 등에 설치할 전시 콘텐츠를 공개했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콘텐츠와 함께 들어설 조형물 등 예술작품들을 제작하는 데 작가들의 발칙한 상상력이 발휘되면 좋겠다. 자기 검열에 빠진 예술가, 눈치를 보는 예술가가 생산해내는 작품이 감동을 줄 리 없다.

앞으로 도청 콘텐츠 관련 설명회가 열릴 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오월 광주'의 완성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월 관계자들 역시 시민사회와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두 번 다시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옛 전남도청의 준공 기한은 오는 2025년 10월이다.

社說

'과열'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원팀 정신' 위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원내와 원외 대결로 경선 초반부터 관심을 끌었다. 양부남(서구을) 후보가 광주 현역 국회의원 8명을 대표해 출마한데 맞서 강원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출마표를 던지면서 원내와 원외간 자존심 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내일부터 권리당원을 시작으로 4월까지 선거가 진행되는데 막판으로 치달으면 상대를 비방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두 후보는 그제 기자회견과 문자를 통해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했다. 강 후보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시·구 의원들을 앞세워 양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며 "당원 주권시대에 바뀌어야 할 낡은 관행"이라고 비판하자 양 후보는 "선거를 과열로 몰아가고 당원을 거저 선동으로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역대급

과열로 치닫는 것은 지난 4월 총선 공천과정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탓이 크다. 총선 낙선자 진영과 22대 국회에 입성한 세력간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원내와 원외간 자존심 대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경선 과열은 기초의원들의 줄서기 구태정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벌써부터 시·구 의원들이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장까지 특정 후보 지지에 가세하고 있다니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

과열 경선은 선거후에도 봉합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긴다. 호남 정치 복원이 절실한 시점인데 오히려 호남 정치 분열을 초래하고 '원팀 정신'을 훼손해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2년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란 선택지 하나를 더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텃밭에서 민주당의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

광주 마한유적 복원과 보존 계획 수립해야

광주지역에 존재했던 6세기 전후 고대 문화의 모습을 간직한 마한 시대 고분이 관리 부실로 훼손됐다. 광주시 북구 각화동 각화정수장 야산에 위치한 '각화동 2호분'은 영산강식 석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석실 구조 및 출토 유물을 통해 광주지역 토착세력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다. 특히 백제에 병합되기 이전의 광주지역 마한 역사를 간직하는데다, 광주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집단 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서 터파기공사중 고분이 훼손됐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부지에 있다가 사라진 '각화동 1호분'처럼 소실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문화재를 훼손한 토지 소유자의 잘못이 크지만 지역 내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극한호우가 내리는 시기인만큼 추가 파괴나 소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곧바로 복원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항구적인 관리 방안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는 유물이나 유적지를 관련 법에 따라 발굴부담 등 영산강식 석실 고분이며 두차례나 도굴 피해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광주지역 토착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와 광주시문화유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2호분은 2021년 토지 소유주가 건축과정

無 等 鼓

"독박육아에 독박살림까지 별써 몸살이 온 것 같아요", "애들 종일 먹을 것 준비해놓고 출근하려니 정작 내 휴식은 어디에서 찾아요."

엄마들의 두려움 섞인 한숨소리가 시작됐다. 방학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한탄이다. 그런데 가만 듣고 보니 엄마들의 한숨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다. 학원으로 내몰려야 하는 아이들의 불만소도 그에 못지않다.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에 들어간다. 그나마 1~2시간 정도 낮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방학 유감

지난주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번 주 지역 초등학교까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다. 이맘때가 되면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는 '방학이 무섭다'는 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방학(放學)'은 사전적 의미로 '학업을 쉰다'는 뜻이다. 학교는 학기가 끝난 뒤 일정기간 수업을 쉬는 기간을 둔다. 하지만 현실 속 방학은 '엄표'가 아닌 다음 학기 성적 향상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되어버려, 오늘 고3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다음주 수능 D-100일인데تى 기념으로 야구장 갈까?" 닥서스름이 내려앉아 있던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고등학생들에게 방학은 사치일 뿐이다. '3년간 눈 감고, 여행은 수능 이후로 미루자'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여행가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나선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다음주(토요일)는 휴가이며, 정규 과제와 함께 별도의 방학 과제가 제공되었습니다.' 지난주 아이의 넷 카페나 SNS 등에는 '방학이 무섭다'는 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학년 속제가 더해지면 방학이 마냥 좋을 리가 없다. 방학을 방학답게 보낼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아이도 부모도 모두가 반기는 방학이 간절해진다.

오늘 아침, 뒤도 안돌아 보고 직진해야 하는 고3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다음주 수능 D-100일인데تى 기념으로 야구장 갈까?" 닥서스름이 내려앉아 있던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이보람 예방부 차장 bora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경 제 부 220-0652 사 회 부 220-0663 전 남 본 부 220-0680	문 화 부 220-0661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